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용없는 성장’시대 대학생
진로교육의 방향 탐색
: 제주대학교 학부생을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Jobless Growth’ Era in
Je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김 미 나

2018년 2월

‘고용없는 성장’시대 대학생
진로교육의 방향 탐색
: 제주대학교 학부생을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Jobless Growth’ Era in
Je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김 미 나

2018년 2월

김 미 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재 홍 인

심사위원 서 명 석 인

심사위원 김 민 호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12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7
1. 대학생의 진로교육	7
2. 정부와 대학의 진로교육정책	14
3. ‘고용 없는 성장’ 시대 대학생 진로교육의 방향	18
III. 연구방법	24
1. 분석의 틀	24
2. 연구대상	24
3.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25
4. 분석방법	27
IV. 연구결과	30
1.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	30
2. 제주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	35
3. 제주대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	37

V. 논의 및 결론	40
1. 논의	40
2. 결론	41
참고 문헌	44
ABSTRACT	47
부 록	49

표 목 차

〈표 II-1〉 대학 진로교육의 변화	8
〈표 II-2〉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이론	12
〈표 II-3〉 대학생 단계의 진로개발 표준	13
〈표 II-4〉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추진 과제	15
〈표 II-5〉 대학창조일자리센터·취업전략본부 진행 프로그램 현황	16
〈표 II-6〉 제주대학교 취업관련 교양 교과목	17
〈표 II-7〉 제3섹터 개념 정의	21
〈표 III-1〉 설문조사 대상	25
〈표 III-2〉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 현황 설문지 구성	26
〈표 III-3〉 진로인식 측정항목별 신뢰도 분석결과	27
〈표 IV-1〉 진로 결정에 필요한 것	30
〈표 IV-2〉 진로 결정 여부	31
〈표 IV-3〉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가장 큰 조건	31
〈표 IV-4〉 졸업 후 희망직업	32
〈표 IV-5〉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한 노력 (1순위)	33
〈표 IV-6〉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한 노력 (2순위)	33
〈표 IV-7〉 어학점수 보유 및 어학연수 경험 여부	34
〈표 IV-8〉 전산자격증 보유 및 인턴 경험 여부	34
〈표 IV-9〉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36
〈표 IV-10〉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종류	37
〈표 IV-11〉 진로교육 프로그램 도움 여부	38

그림 목 차

[그림 III-1] 분석의 틀	24
[그림 IV-1] 취업 후 희망 최저 연봉	32
[그림 IV-2] 취업준비에 투자하는 월평균 금액	34
[그림 IV-3] 취업준비에 투자하는 일평균 시간	35
[그림 IV-4]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미도움 이유 ...	36
[그림 IV-5] 대학입학 후 진로 교육 경험 유무	38
[그림 IV-6] 진로결정 영향 요인	38
[그림 IV-7]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미도움 이유 ...	39

국 문 초 록

‘고용 없는 성장’ 시대 대학생 진로교육의 방향 탐색 - 제주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

김 미 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공장자동화와 정보기술산업의 확대와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을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뜻한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진로교육은 개인의 적성, 소질,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가치관 등 개인의 잠재능력을 고려하여 진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방향을 통해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실천적 교육이다. 여기에 추가로 만족스러운 생애를 설계 및 수정하도록 하는 실천적 교육으로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국가와 대학이 진로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진단

하고 개인 진로교육 활동을 탐색하여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고등교육 기관)의 진로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대학생 시기의 진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진로교육 정책과 대학은 어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시행되어야 할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끝으로 연구자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추가 사항을 논의한다.

주제어: 고용 없는 성장, 진로교육, 노동시간 단축, 제3부문, 노동교육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대학생들은 초·중·고, 대학교 시절 수회에 걸쳐 진로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다. 그런 고민을 할때쯤 우연히 접한 책이 경계넘기를 가르치기(bell hooks, 2008)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론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지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그와 같이 진로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연구자는 이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4년에는 29,284,279원, 2015년 30,660,110원, 2016년 31,952,351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조금 나아졌을까?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대학생실업률은 10%, 2015년에는 10.5%, 2016년은 10.7%로 연속 상승하고 있다. GDP의 상승과 취업률로 미루어 짐작컨대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하고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어떤 진로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잡코리아’에서 2015년 1651명을 대상으로 취업사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50%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지불 비용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였고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31.1%에 달했다. 이에 반해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12.8%에 불과했다. 앞의 설문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진로교육과 그에 따른 진로준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심지어 인터넷 한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대학생 772명을 조사한 결과

37.9%가 스펙을 쌓기 위해 졸업을 유해하여 코스모스 졸업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이어 31.9%가 취업이 어려워 코스모스 졸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스펙과 취업을 정하지 못해서 혹은 정했어도 준비과정을 더 갖기 위하여 졸업을 늦추고 있는 대학생이 많다. 개인이 스펙쌓기를 위해 졸업까지 미루며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실업률은 상승하기만 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학생 혹은 청년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무 중심의 채용에 나섰다. 소위 말하는 ‘잉여 스펙’, ‘과잉 스펙’ 근절을 위해 나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130여 개 공공기관에 직무 중심의 채용방식을 선택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 361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학, 학점, 인턴 등 기존의 스펙 쌓기를 지속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76%의 학생들이 스펙쌓기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취업이 직무중심의 채용이나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논문, 면접, 인·적성 검사 등의 스펙을 쌓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 이쯤 되면 낙타가 바늘을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비유를 실감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진로선택을 위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영배(2001)가 지적한바와 같이 취업률은 경기의 변동이나 사회적 가치관 및 규범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11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 2013년 이후 계속해서 2017년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황주희(2016)는 2015년 8월 기준 통계청에서 조사한 공식 실업률은 9.3%인데 반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한 청년 실업률은 34.2%로 무려 4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원인을 통계청의 공식 청년실업률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시험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상태인 청년층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

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혹은 청년 체감 실업률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혹은 대학생의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Jeremy Rifkin(2008)은 전 세계의 실업의 원인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동자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실업이 확산되고 있는 심층적인 원인은 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 기술 향상과 생산성의 증가가 전통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한다는 구시대의 논리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p. 18).”

아마도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퍼센트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가 거의 필요치 않는 농장, 공장 및 사무실이 일반화 될 것이다(p. 21).

위와 같은 예측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진로교육을 하고 받아야 할까? 김영재(2011)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법은 학문의 관점만큼이나 다양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 직업 변화가 잦고 인위적으로 기업의 노동공급을 다룰 수 없으므로 시장개입이 어려워 청년실업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황주희(2016)가 말한 청년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편적인 접근 보다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 실업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혹은 새로운 진로교육을 추가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로교육의 진로를 연구하고자한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과 청년은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할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취업을 앞둔 자로 제한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

가의 정책과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진로교육의 진로로써 제3부분을 소개하고 제3부분으로의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과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재정립과 현재 개인에게 닥친 진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제주대학교가 대학생 진로교육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진로탐색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제주대학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하였는가?

연구문제 3. 제주대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해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기술·자본집약형 산업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복잡한 변수들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도현, 2009, p. 4). 또한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공장자동화와 정보기술산업의 확대와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의 복잡한 변수들을 그 원인으로 꼽는

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경기 순환상의 경기회복 국면에 8분기(24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현상을 말한다. 좁은 개념으로는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지체된 일자리 성장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넓게는 이 두 현상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고용불안정성 현상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정부나 학교나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넓은 의미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 진로

1) 진로인식

진로인식에 대하여 김충기는 ‘진로인식이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 중에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 활동의 관계, 각 진로 추진에 필요한 기초 기능, 학력, 기술 등에 관한 소양, 자신의 잠정적 능력과 앞으로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사고하며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충기, 2000.). 또한 김미란(2004)은 ‘자신의 잠정적 능력과 적성, 특기에 대한 이해, 직업과 일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등 앞으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을 포함하는 가치의 총체를 말한다.’고 하였다(김미란, 2004, p. 6).

이상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진로인식을 자신이 진로 혹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장·단점, 성격, 소질, 적성,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진로탐색

진로 탐색은 ‘대학입학 이후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행동을 얼마나 자주 수행하였는지를 측정하여 탐색행동의 수행 빈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한 것으로 정의’(김은주, 2008, p. 6)하였으며 진로발달 과정의 한 단계로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는

직종에 관하여 조사하고 진로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견학, 자원인사나 산업체 인사와 접촉을 하는 단계라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는 말하였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또한 긴즈버그의 진로선택발달이론에서 현실기의 탐색에 대해서 ‘자신이 이전 시기에 행했던 잠정적인 진로 선택을 좁히기 위해 관심 직업들을 탐색한다.’(김봉환·강은희·강혜영·공윤정·김영빈·김희수·선혜연·손은령·송재홍·유현실·이제경·임은미·황매향, 2016, p. 66)고 저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퍼의 생애진로발달이론-전생애 이론에서는 탐색기를 14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상급학교나 구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김봉환·강은희·강혜영·공윤정·김영빈·김희수·선혜연·손은령·송재홍·유현실·이제경·임은미·황매향, 2016, p. 71).라고 말하며 이 시기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진로인식의 과정을 거쳐 잠정적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3) 진로준비

진로준비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의 발달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의 준비도를 의미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과 이를 위한 진로탐색 및 자신이 결정한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실현 등을 의미한다’(김은주, 2008, p. 5).

이제는 개인의 진로에 대하여 스펙을 쌓는 식의 개인적 접근을 넘어선 구조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교육

진로 교육(Career Education)은 1970년대에 등장한 용어이다. 법률적으로 정의된 진로교육 개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뜻한다.(진로교육법 제 2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로교육이 도달하는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발표 하였는데, 첫째가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둘째는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셋째로는 진로탐색 마지막으로 진로 디자인과 준비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진로교육의 개념을 학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iley와 Stast(1973)는 개인이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로에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Hoyt(1974)는 일 지향적인 사회가치 속에 자신의 인성적인 가치체계를 통합하여 일을 통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공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Taylor(1972)는 진로교육을 아동들이 삶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그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충기(2002)는 진로교육에 대하여 넓은 의미로는 직업 교육이며 직업적성교육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식을 하도록 돕는 인간교육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한국진로교육학회(2011)에서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요구에 기초하여 진로교육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진로교육을 1970년대 이후 21세기를 향하여 새로운 사회발전이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으로써 이를 개념화한 용어라고 보고 진로교육

이란 진로발달과 현명한 진로선택을 통해 행복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의했다.(김보근, 2014, p. 7-8).

Watts에 의해 지금까지 고등교육에서 진로교육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고등교육의 참여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정지은, 2007, p. 16). 그래서 국가는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해 왔다. 그러나 2004년 OECE가 고등교육 단계에서 국가가 진로교육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인적자본 축적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시키고 개입하였다.

다음으로 진로교육의 변화를 정지은(2017)은 <표Ⅱ-1>과 같이 정리하였다. 1940년에서 1970년까지 취업알선의 형태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70년대 부터는 상담에 기반하여 학생의 자아실현을 돕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대부터 2010년 까지는 진로 서비스의 확대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진로 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 되었다. 201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와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대와 가치 등에 관한 대학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면서 대학에서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이 맞추어졌다. 특히나 2010년 이후 고등교육에서 진로교육은 전문성 개발 및 진로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용주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교수, 행정가, 동문, 정부 차원과 같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계와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지은, 2017, p. 17).

<표 Ⅱ-1> 대학 진로교육의 변화

년도	1940-1970	1970-1990	1990-2010	2010-2030
주요 패러다임	취업알선 (Placement)	상담 (Counseling)	네트워킹 (Networking)	연계 (Connections)
환경요소	제조업호황	자아실현 동향, 다양한 후보와 기회	글로벌화, 세대변화	경기 침체, 적은 일자리, 사회적 기대, 고등교육의 가치, 소셜미디어
목적	취업 알선	의사결정 및	준비, 교육, 수입	지역사회,

		기술 향상		공동체연계
방법	고용서비스	상담, 워크숍, 기술향상	코칭, 강의, 취업박람회, 웹 자원	퍼실리테이팅, 소셜미디어, 관계 증진
명칭	직업소개소 (Placement Center)	진로개발 센터 (Career Development Center)	진로 서비스 (Career Services)	진로 및 전문성 개발 (Career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관계자	학생, 고용주	학생	학생, 고용주, 부모	커뮤니티(학생, 동문, 고용주, 부모, 교수, 행정가, 정부)
이론적 관점	특성 요인	유형학 (성격, 흥미, 기술에 기반한 매칭)	절충적 (상담가의 이론적 관점에 기반)	디자인 씽킹 (강점기반, 무질서, 우연)

출처: 정지은(2017, p. 18)

또한 임수희(2007)는 현재 진로교육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 방향은 개인의 적성, 소질,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가치관 등 개인의 잠재능력을 고려하여 진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방향을 통해 직업에서 만족이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실천적 교육이라고 하였다. 조형래(2011)는 진로교육에 대하여 개인이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하고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로를 찾는 것에서부터 수행까지 잘 이어지도록 지도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에 한동조(2016)는 진로교육을 발달과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넓은 의미에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보았다.

가. 대학의 발달과 진로교육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습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그리고 국

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그동안 대학은 인격 도야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습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해왔다. 또한 대학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고 그 성격과 기능을 변화시켜 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정리한 고등교육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기 372년 대학에서는 귀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유학의 경진과 무예 등을 가르쳤다. 이후 통일신라 국학을 거쳐 992년 설립된 국자감은 통일신라의 국학과 더불어 유교를 기반으로 한 관리양성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그 뒤를 이어 성균관은 조선시대 문화, 정치 지도자 양성 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성균관은 학자 양성기관이 아닌 소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기관 혹은 대과 시험 예비 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1895년에는 교사, 법관, 의사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와 법관양성소 그리고 의학교를 설립하였다. 1887년에 들어서는 농업, 공업, 상업 분야의 산업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농무학원과 상공학교를 설립하였고 이어 1898년에는 통신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무학당, 우무학당을 설립하였으며 그 외에도 1990년에는 광산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무학당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산업기술자 양성을 위한 시도는 안타깝게도 국내 산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일제 강점병합 이후 강제 폐교와 통합 혹은 전문학교 수준으로 격하되고 만다. 이후 1945년 고등교육기관은 대학인 경성제국대학과 공사립 전문학교 20여 개뿐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서울 관립전문학교와 경성제국학교를 통합한 현재의 서울대학교가 탄생했다. 그 외에도 일제 강점기 전문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사립학교들도 대학으로 인가를 받기 시작한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당시 부모 세대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자녀에 성공에 결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교육 투자는 매우 중요했다. 더군다나 박정희 정권에는 고등교육의 정원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대학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엄청나게 높였다(김태호, 2011, p. 35). 이렇게 대학은 주로 소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1970-80년대 한국 경제는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였으며 경제 성장과 함께 대학 취학률도 해마다 높아져서 1970년에는 18-21세 취학연령 중 대학생수가 5.3%였는데 반해 80년에 들어서면서는 11.1%에 달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이

23.7%를 나타내며 1980년 이후 대학교육이 대중화되었다고 보고 있다(김태호, 2011, p. 36). 이어 OECD발표에 따르면 2007년 한국 대학진학률은 61%를 기록하였다. 2017년 5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대학교 진학률은 76.9%에 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육은 소수의 엘리트 교육에서 더 나아가 대중교육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육의 측면과 이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나.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단계 차원에서 진로교육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다루어지고 있다(최규하, 2016). <표 II-2>와 같이 여러 발달과업 중에서 먼저 가장 먼저 진로발달 이론을 제안한 Ginzberg(1951)는 개인이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발달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Ginzberg는 크게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진로 발달의 단계를 설명 하였는데 대학생은 이 세 단계중에서도 현실기에 해당한다. 현실기는 또 세부적으로 탐색단계, 구체화단계, 특수화 단계로 나뉘어진다. 탐색단계는 관심 있던 직업을 탐색하는 단계로써 관심 있던 직업을 탐색하여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하며 선택의 폭을 좁힌다. 그 다음 구체화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하여 특정 진로의 분야를 선택하는 시기이며 마지막으로 특수화단계에서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 시킨다.

Super(1953)는 진로의 문제를 발달단계로 보았다는 점에서 Ginzberg와 비슷하다. 그러나 Ginzberg는 진로발달을 24세까지로 설정했고 Super는 전생애에 걸쳐 진로발달이 이루어지고 진로발달단계의 재순환을 강조했다. 또한 Super는 진로발달과 직업선택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진로발달에는 직업선택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일의 세계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역할들을 포괄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최규하, 2016).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은 탐색기에 속한다. 이시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나뉘며 잠정기에는 흥미와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선택을 하고 전환기에 들어와 이러한 잠정적인 진로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시행기에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두 학자와 달리 Tied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은 연령

과 관계없이 전 연령에서 진로 정체감을 형성해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진로 정체감이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아실현에 대한 인식 또는 생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규하(2016)는 진로발달과 직업선택의 목표를 일과 관련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로 설정하였다. 직업적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흥미, 목표와 재능에 대하여 명확하고 안정된 인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비교적 만족스러운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준다고 하였다.

<표 II-2>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이론

학자	연령	발달단계	특징
Ginzberg (1951)	현실기 (18~ 24세)	환상기	•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욕구와 충족을 직업선택으로 동일시
		잠정기	• 초기에 흥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나, 후반기에 자신의 현실적 여건들을 인식
		탐색단계	• 직업을 탐색하여 몇 개의 대안 설정
		구체화 단계	• 특정 진로분야 선택
		특수화 단계	• 특정한 진로분야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과정 선택
Super(1953)	탐색기 (15~ 24세)	성장기	• 주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 발달
		탐색기	•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하게 되며, 잠정적 진로선택
		전환기	•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
		시행기	•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 선택
		확립기	•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 그곳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Tiedman& O'Hara(1963)	연령 관계 없음	유지기	•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퇴지기	• 직업에서 은퇴하여 다른 활동을 찾게 됨
		탐색기	• 진로목표 설정, 대안탐색. 진로목표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에 대한 예비평가
		구체화기	• 구체적인 진로준비
		선택기	• 구체적인 의사결정
		명료화기	• 결정을 신중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결론 짓기
		순응기	•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에 적응
		개혁기	• 인정을 받은 후에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 주장
		통합기	•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타협/통합

출처: 정지은(2013, p. 9)

대학생의 진로개발 표준 중 하나인 대학생 단계의 진로개발 표준(최동선·윤형한, 2007)에 따르면 대학생 단계에서는 크게 3가지의 목표를 가진다. 첫째는 자신의 이해이고 다음은 교육 및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그리고 마지막은 진로 계획 및 관리이다. (<표 II-3 참조>) 대학생 단계의 진로개발 표준을 살펴보면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표 II-3> 대학생 단계의 진로개발 표준

구분	목표
자신의 이해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 자신 모습의 총체적인 이해 • 긍정적인 자기 수용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의 중요성 인식 •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능력 개발
	일과 직업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경제적인 환경변화가 개인의 삶과 직업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개발 통합
교육 및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긍정적인 직업가치와 태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조직문화의 형성과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태도와 습관 함양
	진로정보의 탐색 · 해석 · 평가 ·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 탐색 및 수집 • 자신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 활용 및 평가
	학업적 성취 및 수행능력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목적과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학업적인 성취와 수행능력 향상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의 장에 적극적인 참여
진로 계획 및 관리	진로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 진로 결정
	진로계획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계획 수립 및 실천 • 진로계획의 실천 과정과 결과의 지속적인 평가
	효과적인 구직 · 직업유지 ·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창업 등을 위한 고용 능력 개발

출처: 최동선 · 윤형환(2007)에서 재구성

2. 정부와 대학의 진로교육정책

가. 정부의 대학생 진로교육정책

개인의 꿈과 끼를 실현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효율적으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국가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16년 ~ 2020년까지

지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표 II-4>와 같이 내놓았다. 진로교육법(15년6월22일), 진로교육법 시행령(15년12월22일)을 제정하고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단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지원체계의 미흡 등 실질적인 진로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16년 4월 5일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하여 대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하였다.

<표 II-4>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추진 과제

진로 교육과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로교육 편성 유도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확대 •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보급 • 대학생 진로개발 멘토링 강화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학습 프로그램 확대 • 지도교수제 운영 권장 • 진로교육 지원 교직원 연수 실시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의 창업·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출처: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년차) 내용 재구성

위의 표와 같이 교육부는 대학생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진로 교육과정 확대,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네 가지를 과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과제인 진로 교육과정 확대를 위하여 진로교육을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인턴십 교육과정 편성을 유도하였다. 두 번째 과제인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서는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과 보급과 진로개발 멘토링 강화 그리고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과제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음으로 세 번째 과제인 진로교육 인력 확

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서는 지도교수제 운영을 권장하고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과제인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상담 기능을 연계하여 학생 중심의 창업·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적 접근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개인적 특성들의 관련성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진로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정지은, 2017, p. 3). 따라서 학생의 진로교육에 있어 현재 대학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제주대학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표 II-5>와 같다.

<표 II-5> 대학창조일자리센터·취업전략본부 진행 프로그램 현황(2016년 9월~2017년 8월)

종류	행사명
캠프	여대생리더십캠프, 진로설정캠프, 진로계획캠프, 청소년 진로캠프, 기업방문 취업캠프, 면접캠프, 공사/공기업 취업대비 캠프, NCS기반 취업캠프
특강 및 설명회	자기탐색 및 강점분석 진로특강, 보물지도 제작 특강, 단과대별 특화 진로 특강, 멘토링, 신입생 대상 대학생활계획 특강, 커리어코칭, 여대생 특화 특강, 공사/공기업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특강, 청년취업아카데미, 강소기업 탐방, 취업포트폴리오 특강, NCS기반 취업준비 특강, 자기소개서/면접 특강, PSAT특강, 리더십 특강, 학과별 맞춤형 취업특강, 토론스터디
인력양성교육 채용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청년취업아카데미
명회/ 박람회	MINI JOB FAIR, Job Ara Festival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 및 취업지원 설명회, 외국계기업 취업 대비 영어Resume작성 특강, 해외인턴십(영국, 디즈니월드,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출처: 제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취업전략본부 진로교육 프로그램

창업 교과목을 제외한 제주대학교 취업관련 교양 교과과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표 II-6>와 같다. 교육과정이 거듭할수록 대학에서도 취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6> 제주대학교 취업관련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	과목명
2011~2014	여대생진로탐색과커리어설계
	진로와직업의세계
	자기관리와미래준비
	진로와취업상담 (1~4학년, 8개 학기)
2015~2017	여대생직업선택과커리어개발
	여대생진로탐색과커리어설계
	진로와직업의세계
	취업과직업의세계
	2020년의미래과학과여성과학기술인
	성공적인직장생활
	진로와학업설계 상담(1, 2학년, 4개학기)
진로와취창업상담(3, 4학년, 4개학기)	

출처: 제주대학교 교육과정(2011~2017년) 재구성

배영주(2011)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기관의 자율을 이유로 학습을 학생과 대학의 개별적인 문제로 인식하여왔다. 대학 현장에서 학습과 진로를 함께 다루는 개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대학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대학교 취업과 진로관련 프로그램과 2011년부터~2017년까지 개설된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고려하거나 삶의 가치와 연계한 의미 있는 직업 찾기와 같은 진로프로그램의 구성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3. '고용 없는 성장'시대 대학생 진로교육의 방향

대학생들의 진로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관점 역시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노동의 종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로봇, 나노 테크놀로지, 생명 공학 등과 같은 형태의 지능적 기계들이 농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점차 대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21세기에는 반복적인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 업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효율적인 기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 쯤이면 산업 부문을 관리·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 5% 정도만 필요할 것이며 노동자가 거의 필요 없는 농장과 공장 그리고 사무실이 일반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 끝에 산업화 사회는 노예 노동의 종말에 종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의 종말로 인한 고용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의 종말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수소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체제의 재편과 관련된 노동이다. 두 번째는 주당 35시간의 노동 시간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3의 부문에서의 직업과 사회적 자산에 대하여 설명한다(Jeremy Rifkin, 2008).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미래의 노동시장에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설명해준다. 이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 시대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특징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로 글로벌 시장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요받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

보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러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과거 한국 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노동력을 모두 흡수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여 일자리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일자리가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불어 일자리가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사회정책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의 고도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런 시기에는 일자리도 세계적으로 옮겨다닌다. 마치 한국에 있던 공장들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 등지로 옮겨가서 일자리가 옮겨간 것처럼 말이다. (전병유 · 어수봉 · 이재갑 · 김동현 · 김우영 · 성지미, 2005, chap. 7)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한국 역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더 ‘한국 경제는 성장의 둔화와 동시에 일자리 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전도현, 2009. p. 5)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전도현, 2009. p. 5)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창출력을 보더라도 1970년대에는 111.2개에서 1980년대 62.4개 1990년대에는 37개 2000년대에는 25.8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25.3개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 역시 2008년에는 20명에서 2010년에는 18.8명, 2012년에는 18.4명, 2014년에는 17.9명, 2016년에는 17.4명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 ‘고용 없는 성장’ 시대 대학생 진로교육의 과제

1) 과학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국과 유럽은 석탄과 증기력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 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렇듯이 에너지 체제의 변화는 생산성의 증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이제 세계는 또 다시 수소나 다른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이런 에너지 체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2)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산업화 사회의 기술 발전으로 이룬 생산성의 증가는 많은 재화가 적은 노동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증가된 산업화 사회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인지 혹은 인력을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약 백년 이상의 시간동안 주당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과 부가 급부를 높여왔다. (Jeremy Rifkin, 2008, p. 27-28) 노동시간은 생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이윤을 늘리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간으로써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자본가들의 양보와 국가권력에 의한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단축은 작업재조직과 생산효율성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크게 네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점진적인 퇴직이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파트타임 세 번째는 초과노동축소 그리고 마지막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성 축소가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열악하고 고된 장시간의 노동에 처한 후진국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실업에 처해 있는 현재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허영구, 2003, p. 99). 예를 들어 1989년 한국 법정 근로 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것이 전자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간단축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문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상승으로 노동비용이 상승되어 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가져와서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회복과정에 있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김영섭, 2008. p. 2)는 입장과 대립을 이룬다. 또한 아직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과 부가 급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보장과 실업문제 해소등의 문제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더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술발전 역시 할 수 있다는 가치관도 다양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3) 제3부문 및 시민사회 강화

제3부문에 대한 정의는 <표 II-7>와 같이 다양하다. 최윤자(2007, p.23)가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Salaman은 제도화 되고 기구화된 조직체로써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소유주나 기부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고 기관의 설립자들에게 분배하지도 않는 기구로써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추구한다고 정의 내렸다. OECD에서는 공식화된 인도주의적 목적 추구를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써 개인들의 기부에 의해 운영된다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World Bank는 독립된 집단 혹은 제도로써 인도주의적이거나 조합주의적 목적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European Commission은 제3부문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새로운 욕구에 반응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비영리적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말한다. 그 외에도 Jeremy Rifkin은 제3부문에 대하여 사람들의 기능과 능력, 전문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으로 제3부문 혹은 시민사회라고 일컬어지며 이 영역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적 유대나 사회적 질서를 창출한다고 하였다.

<표 II-7> 제3섹터 개념 정의

학자 및 기관	정의
Salaman	제도화·기구화된 조직체이며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소유주 또는 기부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으며 이익을 기관의 설립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하며 공익을 추구한다.
OECD	공식화된 인도주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 시민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자발적 개인들의 기부에 의해 운영되며 NGO라는 용어에는 이윤을 내는 조직들, 재단, 교육기관과 교회 및 종교집단등이 포함될 수 있다.

World Bank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집단과 제도로서, 상업적인 목적보다 인도주의적이거나 조합주의적 목적을 특징으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새로운 욕구에 반응하며,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이윤의 재분배가 없다는 점에서 비영리적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관련된 측면에서 상호호혜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Jeremy Rifkin	사람들의 기능과 능력, 전문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으로 제3부문 혹은 시민사회라고 일컬어지며 이 영역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적 유대나 사회적 질서를 창출한다.

출처: 최윤자(2007, p.23)과 Jeremy Rifkin(2008, p.33) 재구성

제3섹터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논의되었는데 시장실패와 집합재의 공급부족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즉 “정부만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집합재를 모두 공급하는 것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대안으로 추구된 것이 제3섹터”최윤자(2007, p. 22)이다. 이런 제3부문은 노동과 달리 특정한 대가 없이 사람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시작되며 부의 축적이 아닌 사회적 응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제러미 리프킨(2008)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시민 사회의 전제는 각자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또한 보다 넓은 사회 공동체의 선을 최적화 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개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시장력으로 정의되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시민 사회는 중요한 사회적 피난처가 되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친교, 신뢰, 공유된 목표와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제3의 부문은 점차 엄격한 상업적인 관계로 정의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대응책이다. 모든 나라는 제3의 부문으로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 공동체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은 사회적 자산 창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p. 35).”

늘 건물에는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비상구가 되어줄 피난처가 바로 제3부문이다. 이를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3부문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 것 그리고 제3부문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과 제3부문으로의 실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의 틀

이 연구를 통하여 [그림 Ⅲ-1]와 같이 현재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제주대학교 4학년 대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 대학 내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과연 시대와 학생의 요구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Ⅲ-1] 분석의 틀

2.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표 Ⅲ-1>와 같다. 제주대학교는 2017년 7월 31일 기준 12개 단과대학(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예술디자인대학)에 10,127명(정원의 학생 포함)이 재학중이며, 정원내 재학생은 9,146명(90.3%)이며, 정원외 재학생은 981명(9.6%)이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5,248명(51.8%)이 남학생이 4,899명(48.2%)보다 많다. 단과대학별로는 경상대학이 1,891명(18.5%)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과대학 1,447명(14.2%), 자연과학대학 1,259명(12.3%), 인문

대학 1,193명(11.7%), 해양과학대학 897명(8.8%), 사회과학대학 771명(7.5%), 사범대학 601명(5.9%), 생명자원과학대학 540명(5.3%) 순으로 재학하고 있다. 개인특성변인은 여학생 59.6%, 남학생 40.4%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 11.6%(170명), 사회과학대학 8.9%(130명), 경상대학 19.1%(280명), 사범대학 5.5%(80명), 생명자원과학대학 6%(88명), 해양과학대학 9.5%(140명), 자연과학대학 11.6%(170명), 공과대학 15.7%(230명), 교육대학 3.3%(49명), 수의과대학 2.1%(30명), 간호대학 2%(30명), 예술디자인대학 4.8%(70명)로 나타났다. 한편 출신고등학교 계열로는 일반계고등학교 출신이 53.6%(787명)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44.4%(651명), 특수목적고등학교 2%(2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설문조사 대상

		전체 재학생	설문조사참여자(명)	설문조사 참여자합계
단과대학	인문대학	1,193(11.7%)	170명(11.6%)	1467명 (100%)
	사회과학대학	771(7.6%)	130명(8.9%)	
	경상대학	1,891(18.5%)	280명(19.1%)	
	사범대학	601(5.9%)	80명(5.5%)	
	생명자원과학대학	540(5.3%)	88명(6%)	
	해양과학대학	897(8.8%)	140명(9.5%)	
	자연과학대학	1,259(12.4%)	170명(11.6%)	
	공과대학	1,447(14.2%)	230명(15.7%)	
	교육대학	462(4.5%)	49명(3.3%)	
	수의과대학	286(2.8%)	30명(2.1%)	
	간호대학	272(2.6%)	30명(2%)	
예술디자인대학	508(5.0%)	70명(4.8%)		
성별	남	4879명(48.17%)	503명(40.4%)	1467명 (100%)
	여	5248명(51.82%)	897명(59.6%)	
출신고교	일반계고등학교	-	787명(53.6%)	1467명 (100%)
	특성화고등학교	-	651명(44.4%)	
	특수목적고등학교	-	29명(2%)	

출처: 대학알리미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 제주대학교 재직 학생 현황(2017년 7월 31일 기준)

3.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가.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이 실시한 학생 진로개발역량지표 조사와 육동은(2005)과 양희진(2005)이 사용한 설문조사 문항을 재구성한 후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제주대학교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소속 단과대학, 출신고등학교를 확인하는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3번 문항). 또 ‘필요하지 않다’ 1번에서부터 ‘매우 필요하다’ 5번까지 서열척도로 구성되었다.(4~9번 문항) 진로 인식, 진로 탐색, 진로 선택, 진로 준비, 진로 교육에 대하여 묻는 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10~23번 문항). 연구자는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약 50명에게 pre-test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3개의 문항 등 총 23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III-2>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 현황 설문지 구성

문항번호	문항 구성 내용	척도
1~3	인구통계학적 변인	명목척도
4~9	진로인식	서열척도
10~13	진로 탐색	명목척도
14~16	진로 선택	명목척도
17~19	진로 준비	명목척도
20~23	진로 교육	명목척도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6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미래융합대학을 제외한 12개 단과대학(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제주대학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으로 한정시켜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조사는 각 단과대학 학과별 조교의 도움을 받아 단순무선 표집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사전에 구조화된 조사도구인 설문지에 대한 조사 진행시 유념사항에 대해 인지시켰다.

조사기간 동안 최종 1600부를 배포하여 148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부수는 총 1,467부이다. 2017년 7월 31일 기준 제주대학교 재학생 인원(10,127명)의 14.4%(1467명)에 대한 표본을 확보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IBM SPS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주대학교 4학년 재학생들의 진로교육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조사도구의 양호도를 판단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각 항목별 크론바하 알파 계수(α)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은 관찰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측정을 반복하였을 때 관찰된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얻는 정도이며 연구자가 해당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여도 시간적, 공간적 등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허유순, 2016 재인용). 이는 측정의 신뢰성으로 측정도구로서 설문지의 척도 일관성(Consistency of measurement)을 나타내며 동일한 연구자가 동일한 측정수단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채서일·김주영, 2016. 신민철, 2007).

이 연구 측정도구로 설문지가 동일한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에 대해진로인식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진로인식 측정항목별 신뢰도 분석결과

구 분		척도평균 (항목삭제시)	척도분산 (항목삭제시)	Cronbach α (항목삭제시)	Cronbach α (N=12)
일의 종류나 정보 인식	필요성	34.78	26.841	.648	.660
자신의 장·단점과 성격 인식	필요성	34.86	28.042	.651	
자신의 소질·적성 인식	필요성	35.05	27.919	.647	
자신의 가치관 인식	필요성	34.22	27.542	.658	
본인 장래희망 직업인과 만남	필요성	34.99	23.102	.593	
본인 장래희망 직종 체험	필요성	34.56	24.446	.595	

신뢰도 계수인 알파값이 0.6이상이면 사회과학분야에서 비교적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는데(정충영·최이규, 2011), 이 연구에서도 진로인식에 대한 알파(α) 값은 <표 III-3>과 같이 .660으로 나왔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고 각 측정항목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제주대학교 4학년 재학생이다. 표본은 의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 계열도 모두 포함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총 12개 단과 대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

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요인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인식을 묻는 항목에 필요한 정도 1과 2를 ‘필요하지 않다.’로 보고 필요한 정도 3을 보통으로 보았다. 그리고 필요한 정도 4와 5를 ‘필요하다.’로 본다.

<표 IV-1>을 보면 일의 종류나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답변에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5.8%, 보통이라는 24.6%, 필요하다는 답변은 39.5%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조금 더 많았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장·단점과 성격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서는 34.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46.9%는 보통이다. 19%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세 번째로 자신의 소질·적성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49.4%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32%는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18.6%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27.3%는 필요하지 않다. 17.9%는 보통이다. 54.8%는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로 본인 장래희망 직업인과의 만남에 대해 52.3%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5.5%는 보통이다. 42.2%는 필요하다고 각각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래희망 직종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8.2%, 보통이라는 27.7%, 필요하다는 44.1%로 나타났다.

<표 IV-1> 진로 결정에 필요한 것

인식 질문	필요하지 않다 (명)	보통이다 (명)	필요하다 (명)	계
일의 종류나 정보에 대해 아는 것	35.8%(526)	24.6%(361)	39.5%(580)	100% (1467)
자신의 장·단점과 성격에 대해 아는 것	34.1%(500)	46.9%(688)	19%(279)	100% (1467)

자신의 소질·적성에 대해 아는 것	49.4%(725)	32%(469)	18.6%(273)	100% (1467)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아는 것	27.3%(400)	17.9%(263)	54.8%(804)	100% (1467)
본인 장래희망 직업인과의 만남	52.3%(768)	5.5%(80)	42.2%(619)	100% (1467)
본인 장래희망 직종 체험하기	28.2%(414)	27.7%(406)	44.1%(647)	100% (1467)

정해진 진로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표 IV-2>와 같이 진로를 정한 학생이 53.7%(788명)로 나타났고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46.3%(679명)로 나타났다.

<표 IV-2> 진로 결정 여부

진로를 정함	진로를 정하지 못함	계
53.7%(788명)	46.3%(679명)	100%(1467명)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직업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적성이나 흥미, 안정성, 연봉, 여가시간 확보, 장래성을 보기로 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표 IV-3>와 같이 가장 많은 37.6%의 학생들이 안정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27.3%로 연봉, 적성과 흥미는 뒤를 이어 23%, 장래성이 9.1% 마지막으로 여가시간 확보가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직업 선택 시 안정성과 연봉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3>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가장 큰 조건

적성, 흥미	안정성(명)	연봉(명)	여가시간확보(명)	장래성(명)	계(명)
23%(337)	37.6%(552)	27.3%(401)	2.9%(43)	9.1%(134)	100%(1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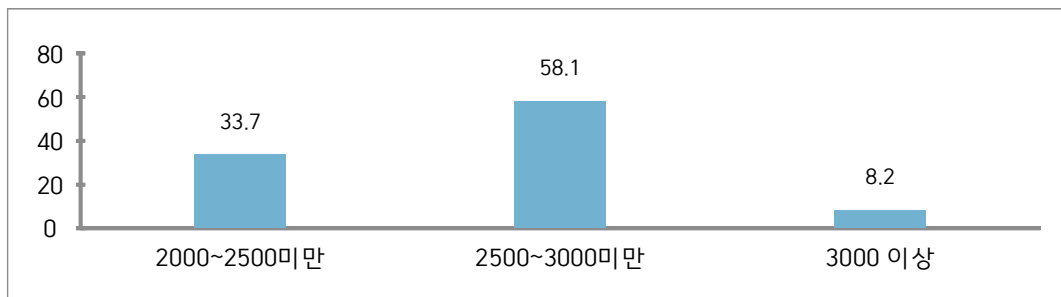
이어서 <표 IV-4>와 같이 졸업 후 원하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37.8%가 공무원이라고 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사기업이 32%, 공기업은 20.2%를 나타냈다. 대학원

진학 혹은 유학을 가겠다는 답변은 5%, 창업 혹은 기업을 잇겠다는 답변은 2.3%, 시민 단체 활동은 1.6%, 사회적 기업으로 취업은 1%에 불과했다. 안정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연봉을 고려한다는 답변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안정성과 연봉 모두를 만족하는 공기업은 20.2%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부분 안정성과 연봉을 고려하여 공무원, 사기업, 공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4> 졸업 후 희망직업

공무원(명)	공기업(명)	사기업(명)	사회적 기업(명)	창업 혹은 기업(명)	시민단체 활동(명)	대학원진학 및 유학(명)	계(명)
37.8%	20.2%	32%	1%	2.3%	1.6%	5%	100%
(554)	(297)	(470)	(15)	(34)	(23)	(74)	(1467)

취업 후 희망하는 최저연봉에 대해 물었을 때 [그림 IV-1]와 같이 과반수가 넘는 58.1%의 학생들이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852명)을 희망하였고 그 뒤를 이어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이 33.7%(494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00만원 이상도 8.2%(121명)를 차지했다.



[그림 IV-1] 취업 후 희망 최저 연봉 (단위: %, 만원)

다. 진로 준비 상황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표 IV-5>와 같이 1순위는 83.7%로 스펙쌓기가 1위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 11.7%는 취업 관련 워크숍 참여를 하고 2.8%는 심리검사, 1.8%는 직업 및 지역사회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한 노력 (1순위)

심리검사 및 상담(명)	취업관련 워크샵참여(명)	스펙 쌓기(명)	직업 및 지역사회탐색(명)	삶의 가치와 직업의 관련성 탐색(명)	계(명)
2.8%(41)	11.7%(172)	83.7%(1,228)	1.8%(26)	0%(0)	100%(1467)

1순위에 이어 2순위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표 IV-6>와 같이 1위가 65.2%로 심리검사를 하고 2위가 21.3%로 취업관련 워크샵에 참여하고 13.4%가 스펙쌓기를 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하여 주로 스펙쌓기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심리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한 노력 (2순위)

심리검사 및 상담(명)	취업관련 워크샵참여(명)	스펙 쌓기(명)	직업 및 지역사회탐색(명)	삶의 가치와 직업의 관련성 탐색(명)	계(명)
65.2%(957)	21.3%(313)	13.4%(197)	0%(0)	0%(0)	100%(1467)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하여 스펙쌓기를 가장 많이 한다는 답변에 따라 주로 어떤 스펙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표 IV-7> 어학점수가 있냐고 물었다. 어학점수가 없다는 답변이 59.7%로 과반수를 넘었다. 하지만 현재 제주대학교 졸업기준에 어학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수치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당시와 졸업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큰 차이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에서 어학점수를 졸업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어학점수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스펙쌓기를 위해 어학연수를 경험했냐는 질문에 22.2%의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학교 프로그램으로 다녀왔으며 그 외 개인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중국, 일본, 호주 순으로 많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어학점수 보유 및 어학연수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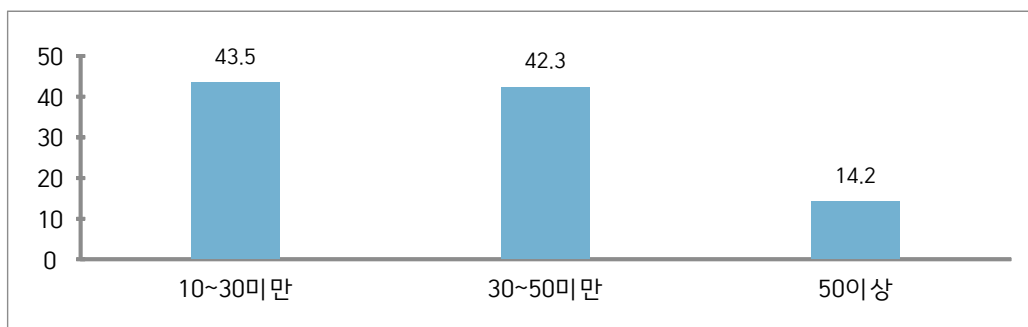
	있음(명)	없음(명)	계(명)
어학점수	40.3%(591)	59.7%(876)	100%(1467)
어학연수	22.2%(326)	77.8%(1141)	100%(1467)

전산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와 인턴을 경험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아래 <표 IV-8>와 같이 75.3%가 전산자격증을 현재 갖고 있었다. 그 종류는 대부분 워드나 컴활이 많았다. 스펙 쌓기를 위해 인턴경험을 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11.7%의 학생들이 인턴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IV-8> 전산자격증 보유 및 인턴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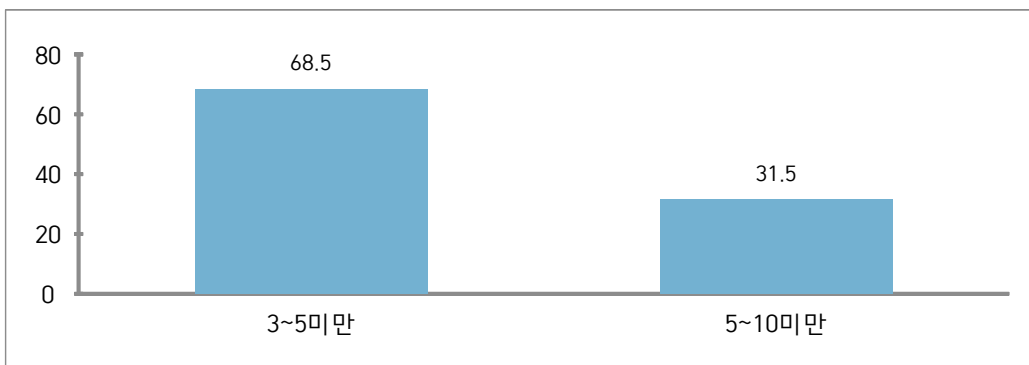
	있음(명)	없음(명)	계(명)
전산자격증	75.3%(1105)	24.7%(362)	100%(1467)
인턴 경험	11.7%(171)	88.3%(1296)	100%(1467)

위와 같이 여러 스펙들을 쌓기 위해 사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림 IV-2]와 같이 10~30만원 미만이 43.5%(638명)로 가장 높았고, 30~50만원 미만이 42.3%(621명)로 경미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하였으며 50만원 이상도 14.2%(208명)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하여 스펙 쌓기를 주로하고 많은 돈을 본인의 진로를 위해 투자하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2] 취업준비에 투자하는 월평균 금액 (단위: %, 만원)

스펙 쌓기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은 [그림 IV-3]와 같이 3~5시간 미만이 68.5%(1,005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5시간 이상에서 10시간 미만도 31.5%(462명)를 기록하였다.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고 대부분 3~5시간 정도 스펙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3] 취업준비에 투자하는 일평균 시간 (단위: %, 시간)

2. 제주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

가. 학생들의 요구 반영 여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더 높게 나온 항목은 직업처우이며 중요하다라는 답변이 더 높게 나온 항목은 일의정보와 일의 종류에 대해 아는 것과, 개인의 장·단점과 성격 아는 것, 소질·적성 알기와 가치관 알기, 직업인과의 만남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치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답변이 74.8%로 가장 높았고 소질과 적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답변이 32.1%로 가장 낮았다. 직업처우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65.7%로 필요도에서는 가장 높았다. 소질과 적성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덜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대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캠프, 특강 및 설명회, 인력양성교육, 채용 설명회 및 박람회와 교양 프로그램도 여대생진로탐색과커리어 설계·개발,

진로와직업의세계, 취업과직업의세계, 2020년미래과학과여성과학기술인, 성공적인 직장생활, 각 학년 학기별 학업과 취, 창업 관련 상담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직업 처우에 관한 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순을 진단하고 학생들에게 이에 따른 적절한 진로교육은 없어 보인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서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진로교육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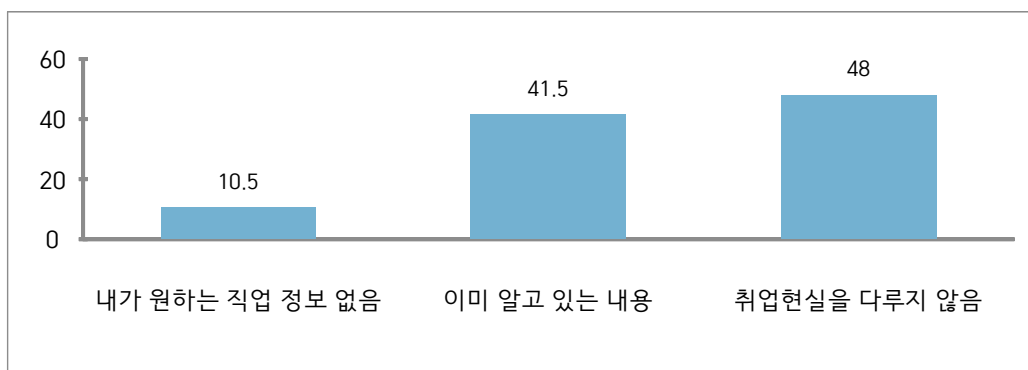
나. 제주대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취업가능성 제고 여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 되었는지를 묻기 전에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제주대학교에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래 <표 IV-9>와 같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5.5%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4.5%에 불과했다.

<표 IV-9>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예(명)	아니요(명)	계(명)
14.5%(160)	85.5%(942)	100%(1467)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85.5%(942명)에게 프로그램이 왜 도움이 되지 않았냐고 물어본 결과 [그림 IV-4]와 같이 취업현실을 다루지 않았다는 응답이 48%(452명)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응답이 그 뒤를 이어 41.5%(391명) 다음순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정보가 없었다는 응답이 10.5%(99명)를 차지했다.



[그림 IV-4]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미도움 이유 (단위: %)

다. 제주대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삶 탐색 기회 제고

아래 <표 IV-10>와 같이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44.9%가 심리검사와 같은 자기인식이었고 그 다음으로 직업종류와 역할에 관한 정보가 36%였으며 그 뒤를 이어 직업체험이 12.4%, 취업현실에 관한 정보 6.6%로 나타났다. 삶의 가치와 직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임수희(2007)는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해결 혹은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의 적성, 소질, 가치관,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등 여러 개인의 잠재능력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탐색을 통해 직업에 만족이 이루어지도록 진로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직업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이 가치관과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상응하는지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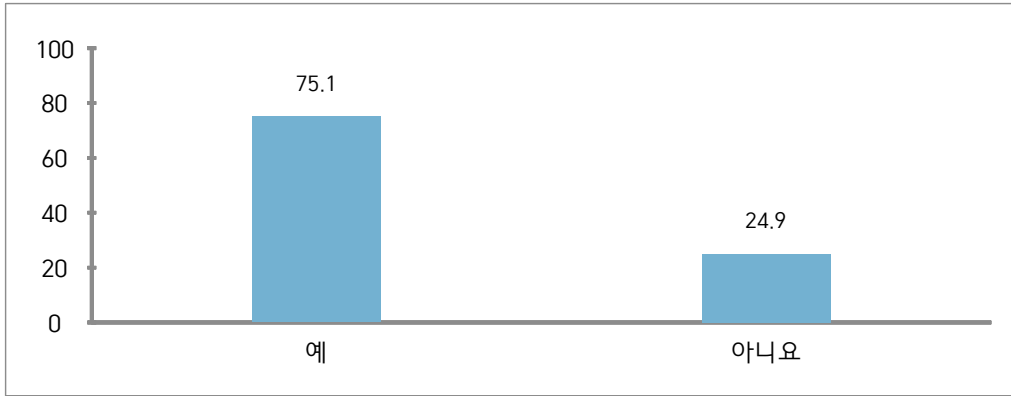
<표 IV-10>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종류

자기인식	직업종류, 역할에 관련정보(명)	취업현실에 관련 정보(명)	직업 체험(명)	삶의 가치와 직업의 관련성(명)	계(명)
44.9%(495)	36%(397)	6.6%(73)	12.4%(137)	0%(0)	100%(1102)

3. 제주대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가. 대학에서의 진로 교육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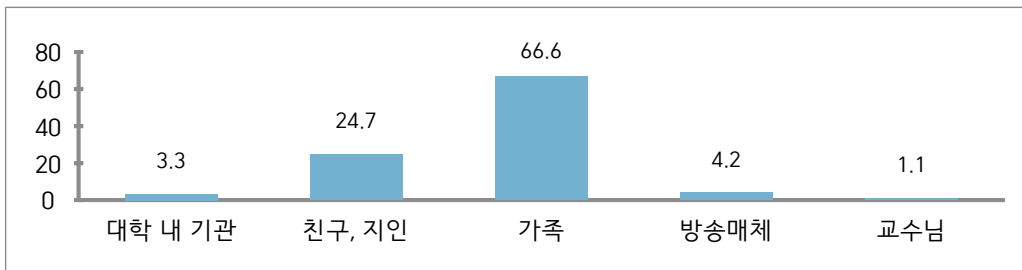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림 IV-5]와 같이 75.1%(1,102명)는 진로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4.9%(365명)는 진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림 IV-5] 대학입학 후 진로 교육 경험 유무 (단위: %)

나. 제주대학교 대학생의 진로결정 영향 요인

제주대학생들은 진로결정을 할 때 [그림 IV-6]와 같이 66.6%(525명)는 가족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순으로 24.7%(195명)가 친구와 지인, 4.2%(33명)는 방송매체, 대학 내 기관은 3.3%(26)에 불과했고 교수의 영향은 1.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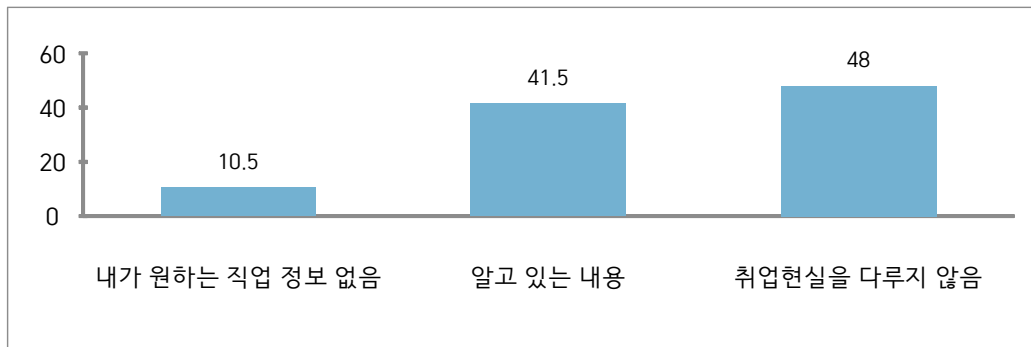
[그림 IV-6] 진로결정 영향 요인 (단위: %)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제주대학교에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질문에 <표 IV-11>와 같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5.5%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4.5%에 불과했다.

<표 IV-11> 진로교육 프로그램 도움 여부

예(명)	아니요(명)	계(명)
14.5%(160)	85.5%(942)	100%(1102)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85.5%(942)에게 왜 도움이 되지 않았냐고 물어본 결과 [그림 IV-7]와 같이 취업현실을 다루지 않았다는 응답이 48%(452명)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어 41.5(391명)% 다음순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정보가 없었다는 응답이 10.5%(99명)를 차지했다.



[그림 IV-7]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미도움 이유 (단위: %)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해야 하는 진로교육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에너지 체제나 삶의 방식 변화, 지역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대비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요즘 에코투어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에코투어는 기존 자연환경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나 그저 환경을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현재 자연의 오염된 모습을 보고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이처럼 새롭고 다양한 관광 방식을 대비하여 지역에 맞는 진로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관광분야에서도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진로교육에 첨가하여 학생들의 진로분야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현재 제주도와 국가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에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제3부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대기업, 조금 더 나아가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진로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고용구조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교육 및 제3부문으로 진출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제3부문의 특성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정임금을 노동자에게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로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경영자 중심의 진로교육과 노동교육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진로교육을 대학에서 앞장서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김혜원(2006)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와 같은 제3부문에 종사하는 한국 전체 노동자가 2006년 기준 약 7%이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3부문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실질적인 진로교육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IVAN ILLICH, 2014)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였다. 내 삶에서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자는 깊이 고민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이 진로교육의 시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도 적었지만,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전문가의 공언 없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 노파가 출산을 도와 집에서 출산하는 방식이 비위생적이고 후진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모습이 현재 대학생들이 많은 스펙을 보유하므로 개인의 능력은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취업이라는 공언 없이는 무능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과연 나의 노동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과연 취업이라는 전문가의 공언에 의해 판단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최종 인 증은 전문가뿐만이 아닌 공동체와 시민들의 모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스로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기존의 진로교육과 진로방향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를 찾고 인 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2. 결론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직업 선택 시 안정성과 연봉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도 공무원으로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2017년 9급 국가직 일반공무원 경쟁률은 33.4:1, 지방직은 인천시가 최고 높은 191:1, 경기 69:1, 제주는 29.17:1 등 평균 21.4:1을 기록했다. 설문에 응한 제주대학교 학생 중 37.8%가 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을 보면 그리 놀라운 경쟁률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조건으로 가장 높게 나온 안정성과 연봉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공기업은 세 번째로 나타났다.

최저 희망 연봉을 조사한 결과 2500~3000만원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연봉 평균이 2200여 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높은 금액이다. 연봉 측면에서 학생들은 아직 현실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괴리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과 연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성적 취득과 자격증 취득 등의 스펙쌓기를 하고 다음으로 심리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당시 59.7%가 어학점수를 갖고 있다고 하였지만 제주대학교 자체 졸업기준에서 어학성적이 필요하므로 이 수치는 상반기가 되어가면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자격증 역시 75.3%가 갖고 있으며 22.2%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학교를 통해 어학연수를 경험하여 스펙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은 11.7%가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대학생은 스펙을 쌓기 위해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33만원을 투자하고 하루 평균 5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이런 노력에도 실질적인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 인식에서 성격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도가 낮게 나온 이유도 심리검사를 통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현재 고용 구조에서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학생들 스스로가 경험적으로 알고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대학의 여러 노력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주대학교 대학생 응답자들 중 85.8%는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85.5%에게 왜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물은 질문에 가장 많은 48%의 학생들이 취업현실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보더라도 개인의 많이 노력과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어렵다. 이는 현실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 정책과 제주대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인식과 진로 탐색 활동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적합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를 바탕으로 하여 대안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로교육도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고려한 진로교육보다 늘 이루어지던 진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확대와 창업과 취업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제주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역시 캠프와 특강 및 설명회, 인력양성교육, 채용설명회, 해외취업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생들 역시 많은 돈과 시간을 진로교육에 투자하지만 본인의 진로탐색과 선택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거시적인 국가의 정책과 학교의 여러 많은 지원이 있고 학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이 연구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특성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이 문제의 답이 있을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첫째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게 될 일자리를 대비하여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성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적은 노동력 투자만으로도 많은 재화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노동시간의 지속적인 단축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노동자 중심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제3부문과 시민사회를 강화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일자리부족 문제의 해소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일석 이조의 방법이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정부의 많은 재정적 지원과 기업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배 (2001). 일본 청소년의 이행(Transtion School to Work)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일본연구. 9, 1-28.
- 김미란 (2004).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로인식 수준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김보근 (2014).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초등학교 6학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봉환·강은희·강혜영·공운정·김영빈·김희수·선혜연·손은령·송재홍·유현실·이제경·
임은미·황매향 (2016). 진로상담. 학지사.
- 김영섭 (2003).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영재 (2011).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은주 (2008).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
자대학교.
- 김충기 (2000). 진로교육과 상담. 동문사.
- 김태호 (2011). 한국 대학교육의 의미 변화와 학력장의 분화.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혜원 (2015). 초중등 학교에서의 사회적 경제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 사회
경제평론, 47, 205-238.
- 배영주 (2011). 대학생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학습주도의 양상 탐색. 열린
교육연구. 제 19권 4호, 213-232.
- 신상훈 (2005). 고용 없는 성장: 거시 동학적 가설. 사회경제평론, 25, 187-219.
- 손승연, 이종연 (2017).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3), 149-170.
- 이광호 (2011). 대학생의 진로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혜민 (2017).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수희 (2007). **대학생 진로교육과정 운영방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유성은 (2017). **대학생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공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윤성원 (2016).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확증편향, 취업불안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전병유 · 어수봉 · 이재갑 · 김동헌 · 김우영 · 성지미 (2005).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 조형래 (2011). **진로교육 운영방법이 대학생 진로태도 및 진로능력과 자기효능감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전도현 (2009). **전문대학생 취업진로지도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정연순 (2011). **사회적 기업과 청년진로개발**. 평생교육학회, 17(2), 123-144.
-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 학습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지은 (2017). **대학생 진로역량과 학생 및 대학 특성의 다층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최규하 (2016). **대학생 진로적응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최윤자 (2007).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한동조 (2016).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진로교육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한병철 김태환(윤킴) (2013).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 한애리 (2017). **대학생의 취업성과와 관련 영향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진수 (2006).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도의 과제. 기전문화연구, 33, 22-23.
- 허영구 (2003). 법정노동시간단축이 임금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주희 (2016). 청년실업의 인과구조적 분석과 정책 지렛대 탐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Illich, Ivan 허택(옮김) (2017).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느린걸음.
- Jeremy, Rifkin 이영호(역) (2008). 노동의종말. 민음사.
- 교육부(2015). 진로교육법 <http://www.moe.go.kr/main.do?s=moe>에서 2017. 10. 08. 인출.
- 서울경제(2017. 8. 10.). 유학파도 토익 열공 '스펙증후군' 여전..."중기 취업도 생각
중. <http://www.sedaily.com/NewsView/1OJP4Y9AOW>에서 2017. 10. 20. 인출.
- 머니투데이(2017. 7. 31.). 취준생 10명중 8명, 블라인드 채용해도 '스펙쌓기' 지속
<http://news.nrt.co.kr/ntview.php?no=2017073111380219114&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에서 2017. 10. 22 인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등교육기관의 역사 <https://encykorea.aks.ac.kr/>에서 2017. 09. 25. 인출.
- 한국은행(2017). 고용계수 및 GDP 추이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NewRptList.action?menuNaviId=500>
에서 2017. 09. 20. 인출.

ABSTRACT*1)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Jobless Growth' Era in Je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MINA KIM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ho

"Jobless Growth" refers to a phenomenon of which the employment stagnates in spite of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main sources of jobless growth can be found in the expansion of factory auto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s well as the extension of overseas investment made by labor-intensive companies. Career education means activit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providing career classes, career psychology test, career counseling, career information, career experience and employment support through school-community cooperation allowing student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8.

to understand the professional world as well as explore and design their career, based on their talent and aptitude. Career education in the time of jobless growth contributes to choosing career in the rational and objective manner, in view of one's potential capacities such as one's aptitude, talent, physical condition, family background or environment and values. Furthermore, it refers to a practical education leading each one into the direction of life with a satisfactory profession or work. In addition to this, it is considered a practical education facilitating design and modification of a satisfactory life for each studen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directionality of career education in the era of jobless growth, by making a diagnosis of the current career education provided by the State and colleges and exploring individual career educ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s of the era of jobless growth. For the purpose of this, this study intends to inquire into how the career education of colleg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iented to college students has been changed and how the career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during the college days. Moreover, this study plans to inquire about the program content of career education policie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colleges. Based on this,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directionality of career education which is supposed to be conducted in the era of jobless growth. Lastly, this study discusses additional points of considerations to effectively apply this career education program in the light of the era of jobless growth.

Key words: *jobless growth, career education,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 third sector, labor education*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 현황 설문조사

질문지 번호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 김미나입니다.

이 설문지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진로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는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여러분께서 평소 생각하시던 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내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의견은 분석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김미나: ☎ 010-4526-2477, 지도교수 김민호

1. 응답자 소속 단과대학명: _____

2. 성별 남자 1 여자 2

3. 출신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 1

특성화고등학교 ... 2

특수목적고등학교 ... 3

● 다음은 **진로 인식**에 관한 물음입니다. 각 항목이 여러분의 진로결정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중요한지 해당되는 곳에 √ 표하거나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항).

인식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1	2	3	4	5
4. 일의 종류나 정보에 대해 아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자신의 장·단점과 성격에 대해 아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소질·적성에 대해 아는 것	①	②	③	④	⑤

인식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1	2	3	4	5
7.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아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본인 장래희망 직업인과의 만남	①	②	③	④	⑤
9. 본인 장래희망 직종 체험하기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 관한 물음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하거나 o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항).

10. 여러분이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가장 큰 조건은 무엇입니까?

- ① 적성, 흥미 ② 안정성 ③ 연봉 ④ 여가시간 확보 ⑤ 장래성 ⑥ 기타 _____

11. 여러분이 졸업 후 원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공무원 ② 공기업 ③ 사기업 ④ 사회적기업*1) ⑤ 창업 혹은 가업 ⑥ 시민단체활동
⑦ 대학원 진학 및 유학 ⑧ 기타 _____

12. 여러분은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하여 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십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두 개의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위: _____, 2위: _____ .

- ① 심리검사(MBTI, 다중지능검사 등) 및 상담 ② 취업관련 워크숍 참여 ③ 스펙쌓기
④ 직업 및 지역사회 탐색 ⑤ 삶의 가치와 직업의 관련성 탐색

13. 여러분이 취업 후 희망하는 연봉은 얼마입니까? (희망 최저연봉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1500만원미만 ② 1500만원~2000만원미만 ③ 2000만원~2500만원미만
④ 2500만원~3000만원미만 ⑤ 3000만원이상 ⑥ 기타 _____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출처-두산백과사전)
예) 제주생태관광, 주식회사 훈디,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연구원,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웨어링, 주식회사 시와월드 등

●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관한 물음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하거나 o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6항).

14. 여러분은 현재 정해둔 진로가 있습니까?

- ① 있다.(18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없다.(진로 준비 문항인 다음 챕터로 가시오.)

15. 진로가 정해졌다면 진로결정에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 ① 대학 내 기관 ② 친구, 지인 ③ 가족 ④ 방송매체 ⑤ 교수님 ⑥ 기타 _____

16. 진로가 정해졌다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적성, 흥미 ② 안정성 ③ 연봉 ④ 여가시간 확보 ⑤ 장래성 ⑥ 기타 _____

● 다음은 **진로 준비**에 관한 물음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하거나 o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9항).

17. 여러분이 현재 쌓은 스펙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중복가능)

- ① 외국어 (_____) _____ 점 ② 전산 _____ 자격증 명
③ 어학연수 _____ 개월 ④ 인턴 _____ 개월
⑤ 그 외 자격증 _____

18. 여러분이 취업준비를 위해 투자하는 월평균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 ① 10만원 미만 ② 10~30만원미만 ③ 30~50만원미만 ④ 50만원이상

19. 여러분이 취업준비를 위해 평균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정도입니까?

(시험공부, 취업정보검색, 워크샵 참여등 모두 포함한 시간)

- ① 1시간 미만 ② 1~3시간미만 ③ 3~5시간미만 ④ 5~10시간미만 ⑤ 10시간 이상

● 다음은 **진로 교육**에 관한 물음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하거나 o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항).

20. 여러분은 대학입학 후 진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28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아니요

21. 여러분이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① 자기인식(심리검사 등) ② 직업종류, 역할에 관한 정보
 ③ 취업현실에 관한 정보 ④ 직업체험(인턴 등) ⑤ 삶의 가치와 직업의 관련성
22. 여러분이 대학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27번 문항으로 가시오)
23. 여러분이 대학교 입학 후 받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였나요?
 ①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내가 원하는 직업 정보가 없었다.
 ②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③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취업현실을 다루지 않았다.
 ④ 담당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⑤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가 접근성이 떨어졌다.
 ⑥ 기타 _____

◆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